

문 16.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 했는가 ?

답 16: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 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 하였다.

성경적 근거: 로마서 5:12, 19; 사도행전 17:26; 창세기 1:18, 2:17; 고린도전서 15:21-22; 문답 12, 13, 14 를 참조

질문 1: 하나님은 누구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나?

질문 2: 하나님이 아담과 세우신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질문 3: 하나님이 아담과 세우신 언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질문 4: 하나님이 아담과 세우신 언약에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가?

질문 5: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6: “첫 범죄”란 무엇을 의미하나?

질문 7: 하나님이 아담과 세우신 언약에 참여한 결과는 무엇인가?

설명:

하나님은 아담으로 더불어 그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 언약을 우리는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며 사람을 지극히 높이 평가하신다는 증표라고 이미 나눈바 있다.

생명의 언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첫째, 생명의 언약은 아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은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직접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당사자의 입장이다. 둘째, 생명의 언약은 아담 자신을 넘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과연 어떻게 아담과 나눈 약속이 아담의 후손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아담”은 그저 인류 역사중의 어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담은 자신과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의 몸과 피를 통해 인류의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 그는 우리 시조이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는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26) 아담과 그의 후손은 모두 한 혈통인 것이다.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5:3) 그리고 6 절 부터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인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5)

레위기 17:11에서는 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는것 같이 우리의 피속에 아담의 죄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담의 피와 DNA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에 참여하게되고 또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었다.

창 1:28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담을 통해서 지구를 다스리게 하실것과 생육법으로 번성하기를 원하셨다.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은 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 까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세대적으로 보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셨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오고오는 모든 세대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18-19) 성경은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를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제 2의 아담되시는 예수를 통해 그를 믿는자들은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되었다고 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되었음을 기분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가 만일 벌을 받는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남의 잘못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인간의 개인주의의 극치를 말해주고 있다. 나, 나, 나 만을 알고 주장하는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상충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또 공동체의 의미를 너무도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은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를 잘 알수 없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그가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 넣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첫 범죄란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범죄는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타락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잡고 넘어가야 한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 겪어야 할 죄와 사망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와 전혀 무관하신 분이시다. 아담의 죄를 이어받으려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인류 역사상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인들의 허물은 담당하실수 있는 분이시다.

이사야 52:13 - 53 장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의 종으로 이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제 6 장 사람의 타락, 죄, 형벌에 관하여**

**6-1. 사람의 타락**

우리의 시조는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지된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죄가 그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작정하기를 뜻하신 후에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그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6-2. 타락의 결과**

그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래의 의(義)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졌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6-3. 원죄(原罪)**

그들이 모든 인류의 뿌리이었으므로, 이 죄의 죄책(罪責)은 일반 출생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轉嫁)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성이 전달되었다.

**6-4. 원죄의 부패성과 실제적 죄들**

우리로 모든 선에 대하여 완전히 실증하며 무능력하며 반대하게 하고 모든 악에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 원부패성으로부터 모든 실제적 범죄들이 나온다.

**6-5. 부패성의 남아 있음**

본성의 이 부패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 남아 있으며,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극복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뿐 아니라 그것의 모든 움직임들도 참으로 그리고 엄격히 죄이다.

**6-6. 죄의 결과**

모든 죄는 원죄이든지 실제적 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어긴 것이요 그것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오며,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영적인, 현세적인,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동반하는 죽음에 복종케 되었다

---